

日本 梅壽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 坊刻活字本 醫書類 刊行者 검토 -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Baizu Edition in Japan

曹 炯 鎮 (Cho, Hyung-Jin)**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梅壽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
| 2. 梅壽版 및 私家版과 坊刻版의 概要 | 6. 梅壽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
| 3. 梅壽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 7. 結 論 |
| 4. 梅壽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 <참고문헌> |

< 초 록 >

(1) 梅壽版이란 梅壽가 1608년부터 1628년까지 21년간 木活字로 간행한 33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2개 조 이상의 활자를 사용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목재이다. 製作技術 수준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세련되지 못하여 중상급이다.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가지런한 편인데, 뺄어진 문자가 다소 있고, 墨色 濃淡이 균일하지 못한 점이 보인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印出技術은 목색의 농담 차이, 墨汁의 번짐 등이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하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5) 印刷技術 수준은 중중급에 해당한다.

要語: 일본 梅壽판, 고활자, 활자 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출기술, 인쇄기술

< ABSTRACT >

(1) The Baizu edition refers to 33 editions printed in wooden types by Baizu in Kyoto for 21 years between 1608 and 1628. He used more than 2 sets of type.

(2) The material for the type was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imitates script writing style to some extent, yet its quality is not sophisticated enough and near upper-middle grade.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Yet there are some skewed characters, and in some pages, the tone of ink color is not consistent. The technical quality is upper-middle grade.

(4) The brushing technique shows some inconsistency, with substantial variance in ink color thickness and frequent spreads of chinese ink. The technical quality is middle-middle grade.

(5) The type printing quality is middle-middle grade.

Key words: Japanese Baizu edition,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 본 연구는 2018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교양학부 교수(chohj@kangnam.ac.kr)

투고일: 2019년 2월 19일 최초심사일: 2019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8일
서지학연구, 제77집, 49-79,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7.49]

1. 緒論

일본의 고허자 인쇄는 임진왜란 발발 직후인 1593년 조선으로부터 그 기술이 전해져서 慶安년간(1648-1651)까지 京都 지방을 중심으로 서적 간행에 이용되었다.

일본 고허자 인쇄의 간행 주체는 크게 爲政者 및 정부기관에 의한 인쇄, 京洛과 地方의 寺刹에 의한 인쇄, 개인 및 서사에 의한 인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찰관이 쇠퇴하면서 등장한 私家版과 坊刻版 중에서 일본의 독특한 활자 인쇄 문화를 형성한 의사들의 서적 간행 활동을 개관하고, 그 중에서 수량이 가장 많은 梅壽版을 대상으로 인쇄 기술 요소를 분석하였다. 판본의 감정은 문헌 자료나 일본 소장처 목록의 지록을 따르되, 오류가 분명한 경우는 필자가 수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과 고허자본을 직접 분석하는 직관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梅壽판 및 사가판과 방각판의 개요·梅壽판의 활자 제작기술·조판(인판의 제작)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쇄기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문화사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술사적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¹⁾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梅壽판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평가표준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타당성 여부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²⁾

2. 梅壽版 및 私家版과 坊刻版의 概要³⁾

2.1 私家版과 坊刻版

2.1.1 私家版과 坊刻版의 出現

일본 고허자의 사가판과 방각판은 위정자 및 사찰의 서적 간행 활동의 영향을 받아서, 민간의

1) 曹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2003. 6), 369-406.

2) 이 인쇄기술 평가표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의 고허자본은 동일한 판본을 복수의 도서관이 소장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조사할 당시에는 동일한 판본 소장처의 한쪽 고서 정리자의 감별 실수로 인하여 전혀 다른 판본으로 인식하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자에 각각 진행하였다. 논문을 집필하기 위하여 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서 정리자의 실수를 알게 되었고 동일한 판본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보니 오차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상하 또는 중상으로 평가 결과를 고민한 흔적까지 똑같았다. 의도하지 않은 비교였지만, 평가표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川瀬一馬, 『增補古活字版之研究』(東京: 共立社, 1967), 329-336, 743-760.; 長澤規矩也, 『圖解和漢印刷史: 解説篇』(東京: 汲古書院, 1976), 38-49. 문화사적인 내용은 이들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서적 간행 사업으로 발달하였다. 당시 고활자본 서적 간행을 주도하던 사찰에는 각수·균자장·인출장 등 인쇄에 필요한 장인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장인의 신분은 승려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사찰 경내 또는 사찰 주위에 거주하면서 서적 간행 작업에 동원되었다.

민간에서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서적을 필요로 하면서 사가관이나 방각관이 출현하였다. 극초기의 사가관 또는 방각관은 아직 서적 간행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찰에 의뢰함으로써 시작하였다. 민간의 의뢰에 의한 간행은 사찰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도 있고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생산된 판본은 간행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사가관 또는 방각관이지만, 간행 수단을 기준으로 보면 사찰관의 범주에 포함된다. 때문에 사찰관과 사가관 또는 방각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사찰관 서적 간행의 장인들은 외부 민간으로부터의 의뢰가 점차 증가하면서 부업 형태로 발전하였고, 거주지도 사찰 경내에서 점차 외부로 옮겨져 갔다. 사찰 역시 경내에서 이루어지던 서적 간행 작업이 장인들을 따라서 사찰 밖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 결과 사찰이 이들에게 간행을 의뢰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찰관은 점차 쇠퇴하고 사가관 또는 방각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방각관은 장인에 의하여 서적 보급을 위한 사가관으로 출발하여 불서 또는 의서류를 주로 간행하였다. 그러다가 이윽고는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각관으로 발전하면서 한적이나 문학류 서적까지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가관 또는 방각관은 장인이면서 발행자가 되는 분명하지 않은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출현한 까닭에, 서사명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극초기에는 개인명을 사용한 경우도 있어서 민간 특징의 사가관과 서사 업자의 방각관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말기 사찰관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와 유사하다. 종래에는 이를 방각관으로 총칭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출현한 사가관 또는 방각관에는 의사들의 서적 간행 활동이 주목된다.

2.1.2 醫師들의 書籍 刊行 活動

의사의 간행에 의한 고활자관은 이미 文祿年間(1592-1595)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慶長年間(1596-1614) 이후에도 다수가 보인다. 이처럼 고활자 인쇄가 도입되던 초기에 의사의 활약은 괄목할 만하였다. 이른바 漢方의 전래를 이끈 의사들은 당연히 한학의 학식도 필수로 했기 때문에 武家에 대하여 승려와 함께 유력한 고문 격이었다. 즉 의사는 중세 이래의 전란 시기에는 의술이 한층 환영을 받아서 병법과 함께 무가 간에 중용되었다. 足利學校의 교수 내용 중에 의술이 포함된 사실을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의사는 인명을 다루는 식자층으로서, 고대 일반인의 존경을 받고, 명의로 인기를 얻으면 경제적

여유가 가능하였다. 즉 재정적으로 부유한 계층인 까닭에 활자 인쇄에도 활약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고급의 의사 중에 장서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의사들의 서적 간행은 醫書만 국한하지 않았다. 초기의 의서 간행에서 더 나아가 佛書와 文學書도 많이 간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附訓本도 독해의 편리를 위한 요구에 따라 간행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수적으로 증가하는 의사들의 면학도 증진하고, 사회의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당시 활자 인쇄 기술 수준이 附訓 활자를 정밀하게 조판하기가 쉽지 않았다. 간행 부수도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여러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미 元和年間(1615-1623)에 부훈 목판본 의서가 나오기 시작하였고,⁴⁾ 寬永年間(1624-1643)을 지나면서 의서 이외의 것을 포함하여 수십 종이 간행되었다.

이 같은 의사에는 豊臣秀次の 侍醫였던 小瀬甫庵을 비롯하여 如庵宗乾⁵⁾·富春堂 五十川의 庵·延壽院 玄朔·醫德堂 守三·梅壽軒의 梅壽 등이 있다. 小瀬甫庵·如庵宗乾·守三·梅壽 등 의사들의 출판물은 방각판은 아니지만, 기타에는 사가판과 방각판이 포함되어 있다.

2.1.2.1 小瀬甫庵

小瀬甫庵(甫庵道喜)은 豊臣秀次の 侍醫로서 일찍이 文祿 5년(1596)에 『(標題徐狀元補註)蒙求』 3권을 간행할 만큼 서적 간행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현존 일본 最古의 고활자판인 文祿 4년(1595) 本國寺版 『天台四教儀集解』와 『法華玄義序』를 이은 것으로, 극초기의 판본에 해당한다. 慶長 2년(1597)까지 4종의 의서를, 寬永 17년(1640) 사망 전까지 2종을 더 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小瀬甫庵 목활자는 潤轍書院版과 迎稱寺版 간행에도 사용되었다.⁶⁾ 潤轍書院版에 사용된 상황은 재론을 피한다. 迎稱寺版의 경우는 慶長 3년(1598)본 『醫方大成論』의 권말 간기에 “山城國上京寺町於一條道場迎稱寺板行焉, 慶長第三戊戌年重陽良日”이라고 되어 있어서 一條道場 迎稱寺의 간행임에는 확실하지만, 그 활자는 분명히 小瀬甫庵이 간행했던 慶長 원년(1596)의 『十四經發揮』, 慶長 2년의 『(新編)醫學正傳』에 사용된 활자와 같다. 따라서 小瀬甫庵版 木活字가 迎稱寺판의 간행에 사용된 것이다.

4) 元和3年(1617)목판본 『八十難經』, 元和8年(1622)목판본 『全九集』 등처럼 元和 이후의 고활자판 의서는 附訓 목판본으로도 적지 않게 간행되었다.

5) 如庵宗乾은 의사라는 확증은 없지만, 그의 활동 내용을 보면 적어도 의사와 관련된 인물임은 확실하다.

6) 曹炯鎮, “日本 要法寺版 및 潤轍書院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55(2013. 9), 230-242. 이밖에 小瀬甫庵은 寬永 17년 사망 전까지 『太閤記』 22권, 『童蒙先習』 1권 등을 저술 또는 간행하였다. 井上宗雄 등편,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東京: 岩波書店, 1999), 517.

<표 1> 小瀨甫庵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編卷-冊數	版本事項 ⁷⁾	비고
1	東垣十書 ⁸⁾	10-17	慶長2년(1597)小瀨甫庵版木活字印本	
2	(標題徐狀元補註)蒙求 ⁹⁾	3-3	文祿5년(1596)小瀨甫庵版木活字印本	
3	信長記	15-7	元和寬永年間(1615-1643)小瀨甫庵版木活字印本 ¹⁰⁾	
4	十四經發揮	3-1	慶長원년(1596)小瀨甫庵版木活字印本	
5	年代紀略	1-1	慶長17년(1612)小瀨甫庵版木活字印本	
6	(新編)醫學正傳	8-8	慶長2년(1597)小瀨甫庵版木活字印本	
7	十四經發揮	3-1	慶長9년(1604)小瀨甫庵版木活字潤轍書院印本	
8	醫方大成論	1-1	慶長9년(1604)小瀨甫庵版木活字潤轍書院印本	
9			慶長3년(1598)小瀨甫庵版木活字迎稱寺印本	

2.1.2.2 如庵宗乾

如庵宗乾 역시 일본 고활자 인쇄의 극초기에 이미 서적 간행에 관심이 많았다. 文祿 5년 여름에 『證類備用本草序例』 1책을 간행하였다. 권말에 “扶桑國平安城, 如庵宗乾模行”의 목기와 “維時文祿五年龍集柔兆涓灘日南至”의 간기가 있다. 봄에 간행한 小瀨甫庵의 『蒙求』보다는 약간 늦었지만, 대형 활자로 음각활자를 병용하고 字形은 小瀨甫庵 활자보다도 훨씬 우수하다. 如庵宗乾판 중에서 초기의 판본임이 확실하다. 慶長 4년(1599)에는 『元亨釋書』(간기: 于時慶長四年戊亥月日 日東洛陽 如庵 宗乾 摸行)를,¹¹⁾ 慶長 9년에는 『徒然草壽命院抄』(간기: 慶長九曆關逢執除姑洗良辰 日東 洛陽 如庵宗乾刊行)를, 慶長 10년(1605) 이전에는 『針灸指南』 등을 간행하였다. 『徒然草壽命院抄』는 平·片假名을 혼용하였다. 『針灸指南』은 삽도 14폭이 있고, 활자 양식과 도판의 조각법이 지극히 고졸하여 극초기의 판본으로 보인다. 고졸한 활자는 대형이지만, 필획이 가늘고 인쇄면의 묵색도 약간 연하고, 쌍변 광곽의 네 꼭지점도 비교적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목판본으로 오해하기

7) 일본의 판본사항 기록 방식은 활자본일지라도 ‘모년모주체刊’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모년모주체刊行’의 의미다. 본 연구에서는 판본의 생산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자본의 경우는 ‘모년모주체모활자(모년鑄 또는 모년刷) 印本’으로 기록한다. 왜냐하면 刊本 또는 刻本은 목판본을 의미하며, 활자본은 활자의 제작 시기와 인쇄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8) 『東垣十書』: 『脈訣』 1-1·『局方發揮』 1-1·『脾胃論』 3-1·『格致餘論』 1-1·『蘭室秘藏』 3-3·『內外傷辨惑論』 3-3·『(東垣先生)此事難知集』 2-2·『湯液本草』 3-1·『醫經溯洄集』 1-1·『外科精義』 2-1·附: 『醫壘元戎』 1-1·『癩(斑)論萃英』 1-1. 楊家駱, 『叢書大辭典』, 臺北: 鼎文書局, 1977. 967. 이를 『醫學十書』라고도 칭하는데, 『癩論萃英』를 『海藏斑論萃英』이라 하고 있다. 楊家駱(1977), 707-708. 이중 小瀨甫庵판 고활자본 『脈訣』·『脾胃論』·『湯液本草』·『醫壘元戎』·『癩(斑)論萃英』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9) 서명 관칭 중의 “標題”가 권말에는 “新刊”으로 되어 있다. 간어에 활자판을 “一字板”이라고 칭하고 있다(“桑城洛陽西洞院通勤解由小路南, 町住居甫庵道喜新刊一字板...惟時文祿第五丙申小春吉辰道喜記”).

10) 소장처의 목록에는 元和寬永年間 또는 寬永年間목활자본으로만 기록되어있고, 간행 주체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필자의 감정 결과 小瀨甫庵판으로 확인되었다.

11) 久原文庫 소장 2개의 판본 중 하나인 慶長 7년 목서(慶長甲寅仲春吉旦, 紀州和歌山見義堂梓)가 있는 판본의 표지 안쪽에는 『法華釋籤』 권1의 고활자본 과지를 사용하고 있다.

쉽지만, 활자판이다.

이뿐 아니라 如庵宗乾 목활자는 五十川了庵의 富春堂版 『太平記』와 『小學集說』의 간행에도 사용되었다.

이들 판본은 대부분 본문은 平假名 활자를, 주석은 片假名 활자를 혼용하여 간행한 점이 특색이다. 또한 嵯峨版 간행에도 깊이 관여한 中院通勝¹²⁾와도 협력하였다.

<표 2> 如庵宗乾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비고
1	徒然草壽命院抄	2-4	慶長9년(1604)如庵宗乾版木活字印本	中院通勝
2	元亨釋書	30-10	慶長4년(1599)如庵宗乾版木活字印本	
3	證類備用本草序例	2-1	文祿5년(1596)如庵宗乾版木活字印本	
4	針灸指南	1-1	慶長10년(1605) 이전如庵宗乾版木活字印本	
5	小學集說	6-4	慶長年間(1596-1614)如庵宗乾版木活字富春堂印本	
6	太平記	40-20	慶長7년(1602)如庵宗乾版木活字富春堂印本	

2.1.2.3 富春堂 五十川了庵

富春堂 五十川了庵의 이름은 春昌, 일명 宗知, 후에 春意로 개명하였다. 기타 문화사적 요소는 재론을 피한다.¹³⁾ 五十川了庵은 『太平記』를 慶長 7년과 8년(1603)의 2차에 걸쳐서 片假名을 혼용하여 간행하였다. 慶長 8년에는 德川家康의 명에 의하여 伏見판 『吾妻鏡』(『東鑑』)를 慶長 10년에 간행¹⁴⁾하였던 명의였다.

五十川了庵의 판본을 보면 목판에 대한 장점인 활자를 빌리기도 빌려 주기도 한 현상을 알 수 있다. 이들 판본은 平·片假名 활자를 혼용하고 있다.

<표 3> 富春堂 五十川了庵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비고
1	脈語	2-1	慶長7(1602)年富春堂了庵版木活字印本	
2	太平記	40-20	慶長8년(1603)富春堂了庵版木活字印本	
3	(新刊)吾妻鏡(東鑑)	52-25	慶長10年(1605)富春堂了庵版木活字伏見版印本	
4	小學集說	6-4	慶長年間(1596-1614)如庵宗乾版木活字富春堂印本	
5	太平記	40-20	慶長7년(1602)如庵宗乾版木活字富春堂印本	

12) 中院通勝은 당시 고전문학의 권위자로서, 여러 고전의 본문을 교정하거나 주석을 가하는 등, 그의 손을 거친 전래본이 적지 않다. 『慶長日件錄』에 보이는 바와 같이, 舟橋秀賢과는 慶長 칙판 『五妃曲』·『長恨歌·琵琶行』 등의 고활자본 간행에 함께 참여하는 등 빈번하게 왕래하였다. 또한 慶長 9년 如庵宗乾의 『徒然草壽命院抄』 외에, 嵯峨版의 간행에도 관여하여 慶長 13년에 『伊勢物語』 5회 간행, 慶長 14년에 『伊勢物語宵聞抄』 2회 간행 등의 판본에 권말 刊語를 수록하였다(川瀬一馬(1967), 206-207).

13) 曹炯鎭, “日本 伏見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59(2014. 9), 71-73.

14) 曹炯鎭(2014. 9), 77.

2.1.2.4 延壽院 玄朔

延壽院 玄朔은 이름 또는 직함으로 道三·東井叟·法印·曲直瀨 등이 있다. 다른 의사들과 달리, 의서 간행에만 주력하였는데, 실제 간행 작업은 문하생인 意齋道啓가 하였다. 慶長 4년에 『延壽撮要』를 비롯하여 元和년간까지 8종의 의서를 간행하였다.

玄朔은 『難經本義』·『藥性能毒』·『局方發揮』·『傷寒明理論』 등 자신이 간행한 판본에 자신의 발문을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인이 간행한 판본에도 발문을 써 주었다. 예를 들면 慶長8年下村生藏 版木活字印本 『(新編)醫學正傳』·慶長16年(1611)慈眼久徳版木活字印本 『萬病回春』¹⁵⁾ 등이다.

『延壽撮要』는 玄朔 자신의 저서인데 平假名 활자를 혼용하여 3종을 간행하였다. 하나는 慶長 4년 자신의 발문을 붙여 간행한 10행 大字本(제3종본), 둘째는 慶長년간 후반기에 간행한 11행본(제2종 8종본), 셋째는 元和年間に 간행한 것으로 보이는 “意齋道啓刊行”의 간기가 있는 9행본(제2종 1종본)이다.

<표 4> 延壽院玄朔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비고
1	難經本義	2-2	慶長12년(1607)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 ¹⁶⁾	曲直瀨玄朔
2	局方發揮(東垣十書之一)	1-1	慶長年間(1596-1614)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	有跋無刊記
3	傷寒明理論	4-2	慶長15년(1610)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	法印玄朔
4	藥性能毒	2-1	慶長13년(1608)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 ¹⁷⁾	意齋道啓
5	延壽撮要	1-1	元和年間(1615-1623)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9행, 2종 1종본) ¹⁸⁾	意齋道啓
6			慶長년간(1596-1614) 후반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11행, 2종 8종본)	
7			慶長4년(1599)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10행, 3종본) ¹⁹⁾	玄朔저, 意齋道啓
8	玉機微義	50-8	慶長10년(1605)延壽院玄朔版木活字印本 ²⁰⁾	東井叟玄朔

15) 이는 권말에 玄朔의 필적을 목판에 판각한 “慶長辛亥(16)仲春初吉延壽院玄朔”의 간기도 있다. 이 활자는 醫徳堂 守三의 판본과는 다르다. 慈眼久徳은 足利학교 九華의 동문인 三要·圓智·玄朔 등과 함께 출판 사업에 관여하였다. 또한 慈眼과 함께 伏見版·要法寺版·潤轍書院版 등의 간행에 관여한 正運은 三要·圓智·潤轍祖博 등 足利학교 출신 學儒 밑에서 출판 사업에 종사하였다. 이는 足利학교가 간접적으로 근세 초기 인쇄문화에 미친 영향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玄朔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병하는 무장에게 조선의 서적이나 인쇄 기구 등을 가져오도록 요청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의 고타활자 인쇄가 조선의 영향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16) 慶長 7년으로 보기도 하고(長澤規矩也(1976), 49.), 慶長 12년(1607)으로 보기도 한다(川瀨一馬(1967), 330.). 고타활자 인쇄의 최고 권위인 川瀨를 따른다. 序文 일부는 본문보다 약간 큰 대형 활자를 사용하였다.

17) 약간 년 후에 복각한 목판본이 있다.

18) 天理大學圖書館은 慶長年間으로 저록하고 있다(449-115).

19) 森潤三郎 소장본에 “門下生意齋道啓刊行之 慶長十三年孟春吉辰 延壽院玄朔”의 목서 識語가 보인다.

20) 발문에 의하여 松印軒玄忠版으로 의심하기도 한다.

2.1.2.5 醫德堂 守三

醫德堂 守三의 부친인 齋藤松印(松印軒, 玄忠居士)은 延壽院 玄朔의 제자였다. 守三은 吉田意庵(宗恂)의 제자였지만, 부친의 간행사업을 거들어 함께 활자 인쇄에 진력하였다. 慶長 8년부터 활자본을 간행하기 시작하여, 무간기본까지 10종에 이른다. 『太平記賢愚鈔』(간기: 慶長十有二丁未曆仲夏如意珠日於醫德堂以乾三正本刊行)는 片假名 활자를 혼용하고 있다. 『(新增)醫方大成發提』에는 “慶長八年癸卯藹月既望 洛陽醫德堂刊”, 『醫方考』에는 “慶長九年甲辰四月十二日 醫德堂刊”의 간기가 있다.²¹⁾

<표 5> 醫德堂守三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비고
1	格致餘論(東垣十書之一)	1-1	醫德堂守三版本活字印本	
2	傷寒明理方論	1-1	醫德堂守三版本活字印本	
3	玉機微義	50-8	醫德堂守三版本活字印本	무간기
4	(新鍅)雲林新穀	4-2	慶長8年(1603)醫德堂守三版本活字印本	
5	醫方考	6-6	慶長9年(1604)醫德堂守三版本活字印本	
6	(新增)醫方大成發提	1-1	慶長8年(1603)醫德堂守三版本活字印本	
7	醫學正傳	8-8	慶長8(1603)年醫德堂守三版本活字印本	
8	節齋醫論	1-1	醫德堂守三版本活字印本	
9	察病指南	3-1	醫德堂守三版本活字印本	寬永4년識語
10	太平記賢愚鈔	40-2	慶長12年(1607)醫德堂守三版本活字印本	

2.1.2.6 기타 醫書類

이밖에 간행 주체나 간행 수단은 물론 간행 년대 등을 부분적으로 알 수 없는 의서류가 다수 있다. 대부분이 방각본에 해당한다. 의서류는 조선본의 번인이 많아서, 활자 양식뿐만 아니라 본문도 저본으로 삼았다. 이는 조선의 인쇄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본 외에는 특히 중국의 明刊本을 저본으로 삼았다.

(1) 有刊記 醫書類

우선 序 또는 간기가 있는 의서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21) 활자본 이외에 慶長 11년에 목판본 『聚分韻略』도 간행하였다.

<표 6> 有刊記 醫書類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刊記, 識語, 版本事項	비고
1	局方發揮抄	2-1	于岾寬永五 ^戊 辰曆(1628)長夏下旬 刊行之	
2		3-합1	寬永五歲戊辰(1628)七月吉日	片假名 혼용
3	難經捷徑	2-2	寬永十四 ^丁 丑年(1637)孟秋仲春 二條通觀音町風月宗知刊行	
4	脈語	2-2	목서 識語: 慶長甲寅(19, 1614)求之	
5	本草序例抄	7권 官爵 1권 7책	元和九年 ^癸 (1623)五月吉辰三條白壁町馬淵屋吉兵衛 ^叢	
6	食性能毒, 日用灸經	2+1-3	右之一冊爲初學蒙士記焉, 慶長第二歲舍丁酉(1597)仲夏初吉, 延命院法印元朔寬永八辛未歲(1631)仲春吉辰重刊	片假名 혼용
7	食性能毒, 日用灸經(法)		寬永8年(1631)版木活字印本	
8	(新鈔)丹溪先生醫書纂要心法	3책	元和七 ^辛 酉年(1621)霜月望日 壽 ^壽 黑澤源兵衛開板	
9	歷代名醫傳略	2-2	于時元和丁巳(3, 1617)姑洗上弦日刊行	
10	玉機微義	50-12	新町通町頭 蘆甚左衛門, 實町藥師町 宇野善五郎, 寬永第五 ^辰 曆(1628)八月吉日辰 繡梓	
11	儒醫精要	1-1	慶長甲寅(19, 1614)仲春吉日 紀州和歌山見義堂梓	
12	醫略正誤	2-2	新町通町頭 蘆甚左衛門, 室町藥師町 宇野善五郎, 寬永第五 ^辰 曆(1628)臘月吉辰 繡梓	寬永5年版 『玉機微義』와 동일인, 동일 활자
13	醫方大成論	10-1	慶長壬子(17, 1612)仲秋日於雲州鹽氏平宣政開板	
14		1-1	慶長十八癸丑歲(1613)二月日於雲州塩氏平宣政開板	
15	醫學源流(醫書大全之內)	1-1	元和七年辛酉(1621)季冬良日重刊	
16	醫學正傳		元和2年(1616)六條鏤版木活字印本	
	日用灸經 → 食性能毒			
17	濟民記		元和3年(1617)版木活字印本	
18	證類備用本草序例	2-2	元和二年丙辰(1616)孟夏良日 關吉衛門重刊 ²²⁾	
19	泰定養生論	1-1	岾寬永第七(1630)稔龍集上章敦群, 白藏夷則吉辰活板焉, 新町通町頭 蘆甚左衛門, 實町藥師町 宇野善五郎	
20	泰定養生主論		寬永7年(1630)版木活字印本	
21	八十一難經		于時元和三 ^丁 巳歲(1617)梅雨吉辰 於洛陽二條大黑町助衛門刊行	목판본의 간기
22	和名集并異名製劑記	2-2	寬永二乙丑歲(1625)初夏吉日	元和9년梅壽版의 重刊일 듯
23	(新刊)黃帝明堂灸經	3-1	慶長十三年(1608)三月吉日	

22) 元和2년목판본 『醫方大成論』이 있다.

(2) 無刊記 醫書類

간기가 없어서 간행 주체를 파악할 수 없는 의서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無刊記 醫書類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기타 특징
1	格致餘論	1-1	慶長元和년간간, 12행 17자
2			慶長元和년간간의 이식자판 ²³⁾
3			元和년간간, 12행 18자
4			元和년간간, 12행 20자
5			元和년간간, 12행 20자의 이식자판
6	古今醫鑑	8책	
7	局方發揮	1-1	慶長전반기간
8			元和寬永년간간, 12행 17자
9	(重刊)東垣十書	1-1	대자 8행 10자
10	脉經	10-5	慶長년간간, 10행 21자
11	(新刊)明醫雜著	1-1	慶長元和년간간, 11행 19자, 天頭に 교정 문자 조판
12	辨證配劑醫燈	3-3	13행 21자, 소형 활자
13	十五指南篇	3-1	慶長년간간, 12행 18자
14	歷代名醫傳略	2-2	慶長년간간, 慶長 2년의 序가 있다.
15			慶長元和년간간, 天頭に 조판
16	醫方大成論	1-1	慶長元和년간간, 11행 20자
17	醫方大成論抄		片假名 활자는 비교적 대형으로 1개에 1자 조각
18	醫法名鑑	4-8	寬永初年傾刊, 橫本, 13행 11자
19	醫書大全論	1-1	10행 20자, 소형 활자, 序만 대자 8행 15자
20	意傳普救錄(乾集)	1책	元和寬永년간간, 12행 21자
21	醫學入門	12책	
22	註解傷寒論	10-합1	元和寬永년간간, 卷首序와 圖解運氣圖 11엽은 목판본
23	(新刊)湯液本草	3-3	12행 20자, 소형 활자, 활자를 중횡렬 사면에 식자
24	八十一難經	6-2	元和6년(1620)이전간, 11행 20자
25	(新編俗解)八十一難經圖要		12행 23자
26			12행 23자본의 이식자본
27	惠德方		寬永4년(1627)이전간, 16행, 횡본, 부훈본, 返點 附刻 활자 사용
28	(新刊)皇帝明堂灸經	3-1	慶長13년(1608)간본의 이식자판, 삼도, 慶長말년의 목서 識語
29			慶長13년(1608)간본의 이식자판, 삼도

(3) 假名 活字 混用 醫書類

平·片假名 활자를 혼용한 판본이 당시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3) ‘異植字版’의 명칭을 ‘同版補修本’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長澤規矩也(1976), 49).

<표 8> 平·片假名 活字 混用 醫書類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기타 특징	비고
1	美濃醫書	1-1	寬永년간간, 14행	
2	授蒙聖功方	2-2	寬永년간간, 14행	
3	類證辨異全九集	7-7	慶長16년(1611)이전 또는 元和년간간행, 단변무게, 12행	濁點 附刻
4			단변무게, 12행본과 같은 판식, 활자·삽도가 다르지만, 비슷한 점에서 전자와 저본이 같았을 듯	
5			元和년간간행, 쌍변무게, 12행	
6	(南北經驗)醫方大成論抄	2책	13행	
7	日用灸經	1책	寬永8년(1631)간	
8	濟民記	3-3	형본	
9	察病指南抄		쌍변무게, 12행	
10			寬永4년(1627)이전간행, 단변무게, 13행	
11	退齡小兒方	1책	寬永7년(1630)이전간행	片假名 혼용

2.2 梅壽版

2.2.1 梅壽軒의 서적 간행 활동

梅壽의 당호는 梅壽軒이다. 梅壽는 豊臣秀次와 徳川家康의 侍醫였던 京洛의 吉田宗恂²⁴⁾의 제자였다. 梅壽 자신이 간행한 판본 중에 『諸疾禁好集』이 있다. 이 판본의 간기에 나타난 “壽 撰刊”은 梅壽가 의사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기타의 약력은 자세하지 않다.

梅壽가 서적을 간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비교적 늦어서, 醫徳堂의 뒤를 이은 慶長 13년경으로, 寬永 5년에 이르기까지 21년간에 30 여종을 간행하였다. 당시의 의사로서는 가장 많은 수량이다. 대부분 판본의 末葉 末行에 간기 1행이 있다.

활자본 이외에 이를 복각한 목판본도 있다. 寬永 5년 활자본의 간행을 마친 이후, 寬永 8년 片假名 附訓 혼용 목판본 『十四經發揮』를 간행하였다. 이는 寬永 2년 고활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부훈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梅壽가 고활자판 의서 간행 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독해에 편리한 부훈본을 목판으로 간행하기 시작한 실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2.2 梅壽版의 數量

오늘날 각 기관의 소장목록과 해제, 연구문헌의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梅壽판은 23종 서적의 33종 판본이다. 앞으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24) 意安(1558-1610), 吉田宗桂의 2남, 角倉了以의 동생.

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실사한 판본은 18종이며, 서영을 참고한 것은 13종(10종은 실사 판본과 중복)이다.

<표 9> 梅壽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刊記, 版本事項	비고
1	格致餘論抄	4-4	寬永三年歲舍丙寅(1626)季秋良日 梅壽刊行	
2	難經本義	2-2	元和三年歲舍丁巳(1617)仲秋之吉梅壽重刊	
3	萬病回春	8-8	元和六年歲舍庚申(1620)季秋吉於洛陽二條梅壽重刊	
4	脈語 ²⁵⁾	2-1	元和五年歲舍乙未(1619)仲秋良日梅壽重刊	(12)490-177
5	名醫類案	12-12	于時元和九年歲舍癸亥(1623)臘月吉辰猪子梅壽刊行	(2)三A14
6	明醫雜著抄	3-3	梅壽刊行	元和寬永년간간, 片假名 혼용
7	保赤全書	2-4	寬永元年歲舍甲子(1624)季秋吉旦 梅壽刊行	(3)303-288, (14)杏6190, (14)貴440
8	本草序例	1-1	慶長十七年(1612)季夏良日 梅壽重刊 ²⁶⁾	
9			元和6年(1620)梅壽版木活字印本	
10	傷寒明理論	4 ²⁷⁾ -2	寬永元年歲舍甲子(1624)季秋吉旦 梅壽刊行	(11)特9-99, (14)杏5444
11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	3-1	慶長十六辛亥(1611)初冬吉辰梅壽重刊	(2)三A9, (4)403-86, (5)54-3-2848, (12)490-169, (16)p79
12			慶長十九甲寅年(1614)季秋良日梅壽重刊	
13			元和二 _丙 辰年(1616)仲夏吉旦於二條梅壽重刊	(12)490-167
14			寬永第二歲舍乙丑(1625)季冬良日 梅壽重刊	(14)杏4314
15	(會通館翻印)素問玄機原病式	1-1	寬永三年歲舍丙寅(1626)仲冬良日梅壽重刊	
16	十四經發揮	3-1	元和四年歲舍戊午(1618)初春良日於洛陽二條梅壽刊行	(12)490-173, (14)貴196
17			寬永二年歲舍乙丑(1625)仲夏良日於洛陽二條 梅壽刊行	
18			寬永二年歲舍乙丑(1625)仲夏良日 梅壽重刊	(14)乾3751, (15)圖16
19	歷代名醫傳略		寬永3年(1626)梅壽版木活字印本	(1)WA7-150
20	(新鏤)雲林神鼓	4-4	元和六年歲舍庚申(1620)仲冬良日於二條梅壽重刊	(1)WA7-77, (14)乾3073
21	醫方大成論	1-1	慶長己酉(14, 1609)初夏良日梅壽重刊	
22			慶長庚戌(15, 1610)季春良日梅壽重刊	
23			慶長十六辛亥(1611)季春良日梅壽重刊	(10)Aoo-6464, (14)杏1038

25) 元和5년(1619)복각附訓목판본이 있다. 여기에는 元和5년간 고향자본의 간기가 있지만, 판식은 그 후에 간행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26) 元和년간복각목판본이 있다.

27) 『傷寒明理論』 3권, 『傷寒明理方論』 1권.

	書名	卷-冊數	刊記, 版本事項	비고
24	醫學源流	1-1	慶長辛亥(16, 1611)五月日梅壽刊	(10)Aoo-6461
25	(新編)醫學正傳	8-8	元和七年歲舍辛酉(1621)初夏良日梅壽刊行	(12)490-171 ²⁸⁾
26	錢氏小兒直訣	4-합1	寬永3年(1626)梅壽版木活字印本	(12)498-13 ²⁹⁾
27	諸疾禁好集	1-1	寬永三年(1626)應鐘上澣梅壽撰刊	梅壽撰刊, 寫本
28	證類備用本草序例	2-1	慶長十四年(1609)八月朔梅壽刊行	(16)p67
29	和名集並異名製劑記	2-1	元和九年歲舍癸亥(1623)季春良辰日梅壽疏之以刊行	(3)特112-36, (14)研2457
30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9, 補遺1-12	慶長十三 ^歲 年(1608)十二月日梅壽刊	초판, 이식자판 있음. (1)WA7-190, (4)403-93, (5)54-2-2847, (12)490-129
31			慶長十三 ^歲 年(1608)十二月日梅壽重刊	(1)WA7-25
32			寬永5年(1628)梅壽版木活字翻印明萬曆年間山陰王氏本	(18)故觀503
33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	9-6	慶長十四 ^歲 年(1609)六月朔梅壽刊	(1)WA7-191, (4)403-87, (14)貴143

비고: 판본의 소장처 또는 출처와 청구기호. 실사 판본에는 실선 밑줄, 서영 참고 판본에는 점선 밑줄.

(1) = (日本)國會圖書館, (2) = 東洋文庫, (3) = 內閣文庫, (4) = 書陵部, (5) = 大東急紀念文庫, (6) = 靜嘉堂文庫, (7) = 尊經閣文庫, (8) = 慶應義塾大學圖書館, (9) = 東京大學史料編纂所, (10) = 東京大學總合圖書館, (11) = 早稻田大學圖書館, (12) = 天理圖書館, (13) = 大阪府立圖書館, (14) = 杏雨書屋, (15) = 寬永版書目并圖版, (16) = 弘文莊古活字版目錄, (17) = 弘文莊善本目錄, (18) =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圖書文獻館.

이상 33종을 보면 「名醫類聚」가 12권 12책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형의 저술이 많다. 그 중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는 4회, 「十四經發揮」·「醫方大成論」·「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등 3종은 3회, 「本草序例」는 2회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十四經發揮」·「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등 2종은 같은 해에 2회 간행되었다.

2.2.3 梅壽版의 版式상 特徵

실사자 18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영 13종 또는 문헌 자료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서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에 필요한 요소만 참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表紙 題簽 書名

서명을 제침에 묵서한 경우가 표지를 개장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7종(「(新編)醫學正傳」은 제침은 탈락하고 흔적만 남음), 제침에 인쇄한 경우가 2종(「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WA7-190·「黃

28) 권1의 1책만 소장.

29) 권2는 결락.

帝內經靈樞註證發微』³⁰⁾이다. 제침 없이 표지에 바로 묵서한 경우가 3종이다. 서명 대신 편명을 제침에 3~12행 15자 정도로 묵서한 경우(『名醫類案』³¹⁾)와 목록을 표지에 묵서한 경우(『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WA7-25)가 각각 1종씩 있다. 서명이 없는 경우도 개장한 경우를 포함하여 4종이 있다.

2) 匡廓 형식

광곽은 18종 모두 사주쌍변이다.

3) 界線 유무

11종은 계선이 없고, 7종은 계선이 있다.

4) 行數

10행이 11종으로 가장 많다. 11행이 6종, 12행이 1종(『和名集並異名製劑記』) 있다. 『名醫類案』의 서문은 예서체 대형 활자로 7행을 조판하였다.

5) 字數

18~25자로 일정하지 않다. 22자가 7종으로 가장 많다. 18자가 6종, 21자가 3종, 19자가 1종(『(新編)醫學正傳』) 있다. 또한 23~25자로 출입이 있는 판본도 1종이(『和名集並異名製劑記』) 있다. 『名醫類案』의 서문은 예서체 대형 활자로 12자를 조판하였다.

6) 小註 형식

모두 쌍행 형식이다.

7) 판구 형식

대흑구가 16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흑구도 1종(『錢氏小兒直訣』)이 있어서, 흑구는 17종이다. 백구는 1종(『(新鏤)雲林神殼』)이 있다.

8) 魚尾 형식

대부분이 상하내향화문쌍어미를 취하고 있다. 3엽이 14종으로 가장 많다. 1엽이 1종(『傷寒明理論』) 있고, 1엽과 3엽을 혼용하고 있는 경우도 2종(『(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14)杏4314·『歷代名醫傳略』) 있다.

30) 제2·4·6책의 제침은 탈락.

31) 편명 아래에 책차 “一(~十二)”를 朱書하였다.

9) 기타 특징

관심을 위하여 모든 판본이 관구·어미·관심 양측 계선이 고착되어 있는 일체식 관심 막대를 사용하였다. 관심제·권차·장차는 소자 활자로 조립하였다. 관심제는 『保赤全書』·『醫方大成論』·『醫學源流』 등 3종은 본서명을 사용하였지만, 나머지 15종은 약서명을 사용하였다.

『歷代名醫傳略』은 천두에 소자 쌍행 3~4자의 출전 서명이 조판되어 있다. 그 결과 상변 광곽 부분이 39mm 더 커졌다.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천두에 극소자 쌍행 2자의 음註가 조판되어 있다. 예를 들면 권1 제1엽 하엽 제5행의 “造音糙少去聲”이다.

의서류에는 인체 그림 등 도형이 적지 않게 나온다. 이들 도형은 활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목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상식이므로 자세한 서술을 생략한다.

『名醫類案』·『(新鐫)雲林神殼』·『醫學源流』·『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등은 음각 활자를 사용하였다.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14)杏4314는 “○” 등 기호 활자를 사용하였다. 『十四經發揮』는 卷中 제41엽 하엽 5~6행 1~2자의 위치에 특대자 “窳” 1자가 있다. 『醫學源流』에는 연각 활자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6자를 연각한 “按歷代名醫圖”이다. 『和名集異名製劑記』는 片假名 활자를 사용하였다.

梅壽판의 간기를 자세히 보면 “重刊”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十四經發揮』·『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처럼 초판과 구별하기 위한 ‘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한번 간행한 판본에도, 여러 번 간행한 판본에도 모두 “重刊”을 쓰고 있는 점에서 ‘明刊本の 번인’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梅壽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梅壽版의 인쇄기술에 대하여 활자 인쇄의 3요소인 활자의 제작, 조판 = 인판의 제작, 인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 수준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인쇄기술을 평가하였다.

3.1 材質과 製作 方法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모든 판본이 동일한 문자의 자양은 일치하지 않는다.

다소 또는 제법 차이나는 경우가 섞여 있지만, 매우 유사하기도 하고, 강건한 해서체의 세련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³²⁾』(1)WA7-190·『靈樞』). 『黃帝內經

素問註證發微』(1)WA7-190과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는 동일한 활자이다.

약간 유사하기도 하고 다소 차이 나기도 하여 세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類案』·『保赤全書』·『明理』·『運氣』(2)三Aj9·『運氣』(14)杏4314·『傳略』·『雲林神』·『或問』·『小兒直訣』·『素問』(1)WA7-25).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WA7-190과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WA7-25를 비교하면, 서체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자양과 크기가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1)WA7-190은 서체가 扁體에 가깝고 크기가 약간 크며 활자 조성 초기 간본이면서, (1)WA7-25는 長體에 가까우면서 약간 작고 마모 현상으로 미루어 많이 사용한 후의 간본이다.

활자를 제법 사용하여 필획이 굵어지면서 윤곽도 퇴화하였지만, 대부분 활자의 마멸된 상태가 큰 오차 없이 비교적 고르게 마모되어 자양이 유사하기도 하고 다소 차이 나기도 하면서 안정감과 세련도를 유지하고 있다(『十四經』(12)490-イ73).

자양이 다소 또는 제법 차이가 있어서 세련도가 떨어지거나 부조화가 섞여있는 경우가 있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十四經』(14)乾3751·『和名』·『素問』(18)故觀503).

3.1.2 刀刻의 痕迹

도각의 흔적은 필획 윤곽에서는 쉽게 보이고, 교차 부분에서는 간혹 보인다. 활자 조성 이후 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다(『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1)WA7-190). 새로 조성한 활자도 있다(『素問』(1)WA7-190·『靈樞』).

필획 윤곽에서도 보이고, 교차하는 곳에서는 꾸준히 쉽게 보인다(『類案』·『保赤全書』·『明理』·『運氣』(2)三Aj9·『傳略』·『雲林神』·『和名』·『素問』(1)WA7-25).

필획 윤곽에서도 쉽게 보이고, 교차하는 곳에서는 역력하다(<사진 1> 참조)(『運氣』(14)杏4314·『十四經』(14)乾3751·『或問』·『小兒直訣』·『素問』(18)故觀503).

제법 사용한 활자여서 필획 윤곽이 등글게 퇴화된 까닭에 윤곽에서는 드물게 보이지만, 교차하는 곳에서는 역력하다(『十四經』(12)490-イ73).

3.1.3 木理의 有無

목리는 목색이 진하여 거의 보이지 않아서 간혹 보이고(『保赤全書』·『傳略』·『雲林神』), 연한 곳에서는 쉽게 보인다(『類案』).

크고 작은 목리가 시종 보이면서(<사진 1> 참조)(『醫方大成論』·『醫學源流』·『或問』·『小兒直訣』·『和名』·『素問』(1)WA7-190·『素問』(1)WA7-25·『素問』(18)故觀503·『靈樞』), 간혹

32) 기술 요소를 예시한 판본은 판심제로 표시하였다. 이하 같다. 대부분이 판심제로 본 서명을 알 수 있다. 다만 『(新編)醫學正傳』만은 권1이 『醫學或問』이기에 『或問』을 사용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역력한 경우도 있다(『明理』·『運氣』(2)三Aj9·『十四經』(14)乾3751).

크고 작은 목리가 역력하다(『運氣』(14)杏4314·『十四經』(12)490-イ73).

3.2 熟練度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자형 및 필획의 윤곽과 필획 굵기의 균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판본이 필서체의 필의를 살리고 있다. 아직 신조 활자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세련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쉽게도 드물게 부조화가 섞여 있다(『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1)WA7-190·『靈樞』).

동일 문자의 자양이 유사하기도 다소 차이 나기도 하여 세련도는 약간 떨어진다(『類案』·『保赤全書』·『明理』·『傳略』·『雲林神』·『或問』·『小兒直訣』·『素問』(1)WA7-25). 필획이 가는 문자가 섞여있는 점에서 꾸준히 보각한 듯하다(『或問』).

다소 부드러운 해서체를 보이고 있으나, 마멸되어 미감을 논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유사한 자양도 있기는 하지만, 다소 또는 제법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세련도도 제법 떨어진다(『運氣』(2)三Aj9·『和名』). 비교적 고르게 마모된 까닭에 이 정도의 세련도를 유지하고 있다(『十四經』(12)490-イ73).

마모된 정도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세련도가 많이 떨어진다(『十四經』(14)乾3751·『素問』(18)故觀503).

3.2.2 文字의 美感

서체의 균형을 대·소자 모두 잘 유지하고 있다. 필획은 매우 균정하고 강건하면서 유려한 해서체의 미감을 잘 살리고 있다. 특히 필획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힘이 넘치는 독특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자양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매우 유사하여 미감은 다른 판본보다 우수하다(『素問』(1)WA7-190). 다만 일부 문자는 다소 사용한 듯 필획이 굵으면서 균정하지 않고 윤곽이 퇴화되어 다듬어지지 않은 듯하다(『醫方大成論』·『醫學源流』). 필획이 결실된 문자가 보인다(『靈樞』).

서체의 균형을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다소 부조화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필획이 균정한 편은 아니나, 부드러운 해서체의 미감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다만 필획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숙련되지 못한 모습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우수한 편에 속한다(『類案』·『保赤全書』·『明理』). 활자를 사용하면서 약간 마모되어 필획이 굵어지면서 윤곽이 퇴화되었다(『明理』).

서체의 균형은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마멸에 의한 부조화가 약간 섞여 있다. 제법 사용하여 필획이 굵어졌음에도 아직 균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자의 크기도 대체로 균일한데, 간혹

약간 작은 경우가 섞여있다. 드물게 필획이 가는 문자도 섞여 있는 점에서 꾸준히 보각한 듯하다. 필획이 끊어진 경우도 있다(『十四經』(12)490-173·『或問』·『素問』(1)WA7-25).

필획이 균정한 경우와 고르지 못한 경우가 혼재하고 있다. 한 문자 내에서도 필획 굵기가 다소 차이 나서 매끄럽지 못하다. 굵은 문자는 서체가 퇴화되어 윤곽이 다소 거칠고 모호해졌다. 제법 사용한 활자여서 해서체의 미감이 다소 떨어진다(『傳略』·『雲林神』).

마멸에 의한 부조화가 섞여 있다. 필획 윤곽은 퇴화되어 균정하지 못하다. 굵은 필획, 퇴화된 서체 균형 등에서도 많이 사용한 활자로 보인다. 사용하던 활자와 필획을 가늘게 보각한 활자가 혼재하여 균일하지 않다. 문자 내의 필획에 따라서도 차이 나는 경우가 간혹 보인다. 조각 상태가 다소 거친 모습이다. 문자의 크기도 미세하게 큰 경우가 있다. 일부의 대자와 대부분의 소자가 아직 원 상태의 가는 굵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매끄럽지 못한 편이다. 미감을 언급하기 어려운 정도이다(<사진 1> 참조)(『運氣』(2)三Aj9·『運氣』(14)杏4314·『十四經』(14)乾3751·『小兒直訣』·『素問』(18)故觀503). 특히 片假名 활자의 경우 필획의 굵기가 고르지 못하여 서체의 미감을 상쇄하고 있다(『和名』).

3.3 기타

3.3.1 活字의 크기

간혹 여타의 문자보다 약간 큰 경우가 보인다. 예를 들면 『保赤全書』의 經·痘·理·癍·櫛·縑·之 등이다(<사진 1> 참조). 많이 사용한 활자와 보각 활자가 섞여있다. 문자의 크기도 다소 커서 안정감을 떨어뜨린다(『運氣』(14)杏4314). 필획이 굵어지면서 다소 큰 경우도 있고, 다소 작은 경우도 드물게 혼재한다(『小兒直訣』).

3.3.2 木板의 並用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十四經發揮』·『(新鐫)雲林神彙』·『錢氏小兒直訣』·『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 등 적지 않은 판본에서 목판을 병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활자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평가를 생략한다.

3.4 綜合 評價

梅壽판에 나타난 활자의 자적을 자세히 관찰하면 자양에 나타나는 필획의 특징·굵기·크기 등에

차이가 있어서 숙련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2개 조 이상의 활자를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모두 소형 활자이다.

활자 제작기술 수준이 우수한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5종(『十四經』(12)490-イ73・『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1)WA7-190・『靈樞』)이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이다.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18)故觀503. 권1 제1엽 상엽 2~4-15~17	『十四經發揮』(14)乾3751. 권상 제1엽 상엽 4~6-5~7	『保赤全書』. 권상 제1엽 상엽 8~10-5~7	『和名集並異名製劑記』. 권상 제1엽 상엽 3~5-7~10
少 師 少 馬 蘊 仲 子 馬 蔣	經 有 太 少 三 陰 陰 陰 少	流 不 網 行 行 緼 相 無 萬	サ 株 セ 又 テ 一 力 陰 名 サ 乾 八

<사진 1> 梅壽版의 도각과 목리, 마모, 문자 크기 차이, 문자면의 수평 등 현상

4. 梅壽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4.1.1 從行

계선의 영향인 듯 가지런한 경우가 있다(『十四經』(12)490-イ73・『素問』(1)WA7-190・『素問』(18)故觀503・『靈樞』).

대부분의 판본이 대체로 가지런하면서 미세한 치우침이 보이는 정도이다. 드물게는 제법 구불구불한 행도 보인다(『十四經』(14)乾3751).

약간의 치우침이 곳곳에 나타나 구불구불한 곳이 자주 보인다(『類案』・『明理』・『或問』・『和名』).

4.1.2 橫列

매우 가지런하여 판면이 정연하다. 활자 동체의 크기가 균일하고 방정한 육면체 활자임을 알 수 있다(『素問』(1)WA7-190).

대부분의 판본이 자간 거리를 유지하여 대체로 가지런하면서 약간의 굴곡이 보인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자 행이나 문자가 없는 행에서는 굴곡 현상이 다소 많이 보인다(『傳略』·『雲林神』·『小兒直訣』). 한자와 크기가 다른 片假名 활자를 혼용하고 있어서 맞추지 못하고 있다(『和名』).

4.2 字跡의 安置 角度

빼뜯어진 정도가 판본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하지 않은 경우가 다소 보이거나(『保赤全書』), 미세한 경우가 엽 당 3~4자, 약간의 경우가 1~2자(『十四經』(12)490-イ73), 미세한 경우가 12~13자, 약간의 경우가 4자(『十四經』(14)乾3751), 약간의 경우가 7~8자 정도 꾸준히 보인다. 음각 문자를 보면 대체로 고른 점에서 사면이 방정하고 높이도 고른 활자이다(『素問』(18)故觀503). 그러나 두드러진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약간의 경우가 5~6자, 두드러진 경우는 1자 정도(『素問』(1)WA7-190·『靈樞』), 미세한 경우가 8~9자, 약간의 경우가 7~8자, 두드러진 경우는 1~2자 정도 보인다.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모두 있다(『小兒直訣』). 이 점에서 인판 광곽을 견고하게 조이지 않은 듯하다.

엽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바른 엽은 잘 정돈되어 있지만, 어느 엽은 두드러진 경우가 2~3자 정도 보인다(『雲林神』·『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1)WA7-25). 묵색 현상을 보면 상당히 가지런하여 방정한 육면체 활자로 보이는데, 이는 음각 문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두드러진 경우가 4~5자(『類案』·『明理』·『運氣』(2)三Aj9), 약간의 경우가 9~10자, 두드러진 경우는 4~5자 정도(<사진 2> 참조)(『運氣』(14)杏4314), 약간의 경우는 적지 않게 보이고, 두드러진 경우는 7~8자(『傳略』), 약간의 경우가 12~13자, 두드러진 경우가 7~8자 정도로 다소 많이 보인다(『或問』).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두드러진 경우가 9~11자(한자 5~6자, 假名 4~5자) 정도로 꾸준히 보인다(『和名』).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3.1 文字面の 水平

문자가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대·소자 모두 거의 없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간혹 보이거나(『素問』(1)WA7-190), 일부 필획이 연하게 인출된 경우가 묵색이 연한 제6엽에서 9~10자 정도 보인다(『或問』). 연하게 인출된 경우만 엽 당 대자 1~2자, 소자 2~3자 정도 보인다(『素問』(18)故觀503).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에서 1~2자 정도로 거의 없고, 연하게

인출된 경우는 엽 당 1~2자 정도 보인다(『十四經』(12)490-473).

대부분의 판본에서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진한 묵색으로 인하여 드물게 보인다(<사진 1> 참조).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엽 당 1자 정도, 연하게 인출된 경우는 2~3자 정도 보이지만 정도는 경미하다. 이는 방정한 활자가 사용에 의한 마모로 인하여 높낮이 차이가 나타난 때문으로 보인다(『十四經』(14)乾3751).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3~4자 정도(『明理』),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3~4자, 희미하게 인출된 경우는 5~6자 정도(『運氣』(14)杏4314),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1책 전체에서 대자는 없고 소자 5~6자 정도 드물게 보이고, 연하게 인출된 경우는 1자 정도(『小兒直訣』) 등 다양하다.

4.3.2 印出面의 水平

묵색을 전반적으로 관찰하면,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묵색이 진한 편이긴 하나, 농담은 아주 약간의 차이를 보일뿐, 대체로 균일하다(『素問』(1)WA7-190).

진한 묵색으로 인하여 판별하기가 쉽지 않으나, 다소 연한 엽에서는 농담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필획이 굵고 진한 경우와 다소 연한 경우가 공존하고는 있다(『類案』·『保赤全書』·『運氣』(2)三Aj9·『傳略』·『雲林神』·『醫方大成論』·『醫學源流』·『靈樞』) 다소 사용한 활자를 혼용한 결과 높이 차이로 인하여 농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혹 두드러지게 연한 문자로 인하여 농담 차이가 다소 큰 엽이 보인다. 농담이 비교적 균일한 엽과 차이나는 엽으로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雲林神』·『醫學源流』·『素問』(1)WA7-25). 특히 『保赤全書』 권상 제31엽에서 농담 차이가 제법 보이고, 제47엽은 판심의 권차 “上”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묵색 농담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진한 경우가 7~8자, 다소 연한 경우가 1~2자(『十四經』(12)490-473), 진하거나 연한 문자가 10자(『小兒直訣』), 또는 15~20자 정도 보이면서 엽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 균정한 엽과 제법 차이나는 엽이 공존하고 있다(『十四經』(14)乾3751). 진한 문자가 7~8자, 필획이 굵으면서 진한 문자도 10여자씩 보인다. 연한 문자는 거의 없다(<사진 2> 참조). 인출면의 높이를 대체로 맞춘 편이다(『素問』(18)故觀503).

묵색 농담이 제법 차이나서 진한 문자가 30자 정도(『運氣』(14)杏4314), 진하거나 연한 경우가 30여자씩 보인다(『或問』). 제법 사용한 활자인 결과 농담 차이도 크다. 또한 활자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묵색의 농담차가 나타나고 있다. 번질 듯 진한 문자도 있으면서, 묵색이 연하여 보이지 않을 듯하거나(『明理』), 거의 안보일 만큼 희미한 경우와 진한 경우가 공존하고 있다. 비교적 고른 엽과 차이나는 엽이 있어서 편차가 크다(『和名』).

광곽과 계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곽 내선과 계선의 일부가 간혹 인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인출되었다. 계선과 활자의 높이가 균일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 참조)(『素問』(1)WA7-190).

대부분 판본이 광곽 내선의 일부와 계선이 활자보다 낮은 결과 인출되지 않아서 단번처럼 보이는 곳이 있다. 『歷代名醫傳略』은 出典 서명 활자와의 높이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계선이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대부분이 인출되지 않았다. 심지어 판심 계선, 어미, 흑구의 일부, 광곽 내선도 인출되지 않은 곳이 많다. 계선의 인출을 주의하지 않은 듯하다. 광곽 외선이 흐리게 인출되기도 하였다(<사진 2> 참조)(『十四經』(14)乾3751 · 『素問』(18)故觀503).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모든 판본이 조립식 광곽에 조임식³³⁾ 조판 방법을 사용하되, 광곽은 광곽용 나무의 가운데에 홈을 파서 쌍변으로 만들고 모서리 양 끝을 45도로 깎아서 조립하였다.

인판 광곽의 꼭지점을 정확히 밀착하여 缺口는 0mm이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1~2mm 벌어지기도 한다. 광곽 모서리의 높이 차로 인한 농담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칫 꼭지점의 밀착 현상만 보면 목판본으로 착각할 수 있다(<사진 2> 참조)(『素問』(1)WA7-190).

대부분 판본의 네 꼭지점이 벌어져 있는 缺口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벌어진 정도가 1~2mm(『運氣』(2)三Aj9 · 『十四經』(12)490-イ73 · 『醫方大成論』 · 『醫學源流』), 2~4mm(<사진 2> 참조)(『類案』 · 『保赤全書』 · 『明理』 · 『運氣』(14)杏4314 · 『十四經』(14)乾3751 · 『傳略』 · 『雲林神』 · 『或問』 · 『和名』 · 『素問』(18)故觀503 · 『靈樞』), 다소 큰 4~5mm(『小兒直訣』 · 『素問』(1)WA7-25) 등이다.

꼭지점이 인출되지 않은 곳이 많다(『或問』). 광곽을 견고히 조이지 않은 듯하다.

잡목의 흔적에 의하면, 광곽을 조이기 위하여 상변의 상방과 하변의 하방에 버팀목을 사용하였다. 다시 이 버팀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그 외곽에 나무못을 사용하였다. 버팀목의 폭은 상변의 경우 크게 19~30mm(『素問』(1)WA7-190), 23~37mm(『類案』 · 『明理』 · 『十四經』(12)490-イ73 · 『雲林神』 · 『或問』 · 『素問』(1)WA7-25 · 『靈樞』), 29~44mm(『運氣』(14)杏4314 · 『傳略』³⁴⁾ · 『素問』(18)故觀503)로, 하변의 경우 6mm(『雲林神』), 17~19mm(『運氣』(14)杏4314 · 『素問』(1)WA7-25 · 『素問』(18)故觀503)로 구분된다. 나무못의 위치는 대체로 상엽 5·11행, 판심, 하엽 4~6·7~9행 이고, 크기는 세로 5~9×폭 9~15mm(『類案』 · 『雲林神』 · 『素問』(1)WA7-190 · 『素問』(18)故觀503 · 『靈樞』), 세로 10~15×폭 14~20mm(『明理』 · 『十四經』(12)490-イ73 · 『素問』(1)WA7-25) 정도이다.

33) 조립식이란 인판을 구성하는 변란·계선·판심·활자들을 짜 맞추어 조판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상대적인 방식은 인판 구성 요소가 하나로 되어있는 고착식 또는 일체식. 흔히 조립식과 조임식을 혼동하는데, 조립의 방식에 조임식과 부착식이 있다. 따라서 조립식과 조임식은 수평 개념이 아니고 상하 개념이다.

34) 『歷代名醫傳略』의 경우 상변 버팀목의 폭은 32~42mm인데, 여기의 29mm까지는 활자를 조판하였다.

4.5 기타

4.5.1 印版

『保赤全書』 196엽 전체의 삼엽화문어미와 광곽에 나타난 인판의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면 3장을 번갈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인판의 조판 순서를 보면 卷上 부분에서는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卷上之二부터는 대체로 인판의 차례를 번갈아 가며 순서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인출 초기에는 아직 원칙이 없었으나, 작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요령을 터득하여 효율적으로 번갈아 가며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엽에서 사용한 인판은 <표 10>과 같다.

이에 비하여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14)杏4314는 상하내향1엽화문쌍어미와 상하내향3엽화문쌍어미의 인판 2장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표 10> 『保赤全書』의 인판 재사용 상황

인판	조판한 서엽
1	序 제1~3엽, 目錄 제3엽, 卷上 제1·5·16~18·21·26·31·34·37·39·42·45·48엽, 卷上之二 제51·54·57·60·63·66·71·74·77·80·83·86엽, 卷下 제1~8·10·12·16·19·21·24·26·29·32·37·40·43·46·49·52엽, 卷下之二 제55·58·61·64·66·69·72·75·78·81·90·94·97·100·103엽.
2	序 제4엽, 卷上 제2~4·6~12·19·20·23·24·27~30·33·36·40·43·46엽, 卷上之二 제49·52·55·58·61·64·67·70·73·76·79·82·85엽, 卷下 제11·13·15·18·22·28·31·34·35·38·41·44·47·50엽, 卷下之二 제53·56·59·62·65·68·71·74·77·80·83·84·88·91·92·96·99·102엽.
3	目錄 제1·2엽, 卷上 제13~15·22·25·32·35·38·41·44·47엽, 卷上之二 제50·53·56·59·62·65·68·69·72·75·78·81·84엽, 卷下 제9·14·17·20·23·25·27·30·33·36·39·42·45·48·51엽, 卷下之二 제54·57·60·63·67·70·73·76·79·82·85~87·89·93·95·98·101·104엽.

4.5.2 界線 격자

계선 격자의 폭은 크게 2종류로 나뉜다. 0.8~1mm(『傳略』·『雲林神』·『或問』·『和名』)와 2.2~4mm(『類案』·『明理』·『運氣』(14)杏4314·『醫方大成論』·『醫學源流』)이다.

4.5.3 本文 字跡의 顛倒와 脫落

실사한 판본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4.5.4 校正의 失手

『名醫類案』의 관심제는 약서명을 쓰고 있는데, “類按”으로 되어 있다.

『保赤全書』 권하 제31엽의 관심에 권차 “下”가 탈락되었다. 『傷寒明理論』 권2 제1·2엽의 관심에 장차를 식자하지 않았고, 『傷寒明理方論』 제3엽의 장차가 “二”로 되어 있다.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2)三Aj9는 권말제에는 “新刊”을 식자하지 않았다. 권하 제39엽의 관심 권차가 “中”, 제42엽의 장차가 “四十三”으로 되어 있다.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14)杏4314는 권1의 권두제를 제외한 기타의 모든 권두제와 권말제에 “新刊”이 없다. 또 권상의 권말제에 “奧”가 탈락되었다.³⁵⁾

『醫學源流』의 본문 제1엽의 관심제에 “源”을 “原”으로 하고 있다.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WA7-190의 권8 제158엽의 관심 장차에 “五十八”을 누락하였다. 이 외에도 문헌에는 오식이 많다는 언급이 있다.³⁶⁾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8)故觀503의 권3 제80엽과 제81엽이 바뀌어 제80엽 하엽에 권말제가 있다.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의 권7 제31엽은 관심 장차가 “三十八”로 되어 있다. 이는 광곽과 관심을 분석한 결과 제28엽을 제31엽으로 개판할 때, “二”는 “三”으로 개식하였지만 “八”은 개식하지 않은 실수였다.

4.6 綜合 評價

조판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3종(『十四經』(12)490-173·『素問』(1)WA7-190·『靈樞』)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이다.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 (14)杏4314, 권상 제1엽 상엽 9~10-5~8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18)故觀503, 편목 제3엽 하엽 3~5-12~15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1)WA7-190, 권1 제1엽 상엽 1~2-1~4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18)故觀503, 권1 제1엽 상엽 1~2-1~4

<사진 2> 梅壽版의 자적의 안치 각도, 인출면의 수평(목색 농담), 인판 광곽의 꼭지점 등 현상

35) 활자는 아니지만, 연녹색의 표지에 묵서된 약서명이 “運氣論 全”으로 잘못 쓰여 있다.

36)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東京: 汲古書院, 1990), 70.

5. 梅壽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5.1 墨色의 濃淡差

5.1.1 全體의 墨色

전반적으로 묵색이 진하여 연한 엽의 다과에 따라 관가름되었다. 간혹 연한 엽이 보이기는 하나, 묵색은 대체로 고른 편이어서 별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保赤全書』·『和名』).

다소 덜 진한 엽이 드물게 보이기도 한다(『運氣』(2)三Aj9·『運氣』(14)杏4314·『十四經』(12)490-イ73·『十四經』(14)乾3751·『雲林神』·『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1)WA7-25·『素問』(18)故觀503·『靈樞』).

더 진한 엽과 약간 진한 엽이 혼재하고 있다(『類案』·『明理』·『傳略』·『或問』·『素問』(1)WA7-190). 대체로 부드러운 묵색인데, 중반 이후 다소 진한 엽이 혼재하고 있다(『小兒直訣』).

5.1.2 葉 간의 濃淡差

농담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균일하다(『運氣』(2)三Aj9『和名』).

엽에 따라 약간 연하거나(『保赤全書』·『運氣』(14)杏4314·『十四經』(12)490-イ73·『十四經』(14)乾3751·『素問』(18)故觀503·『靈樞』) 진한 엽이 혼재하고 있다(『類案』·『傳略』·『雲林神』·『醫方大成論』·『醫學源流』·『或問』·『小兒直訣』). 엽 간의 농담차가 그리 크지 않기도 하고(『素問』(1)WA7-25),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커지기도 하고(『素問』(18)故觀503), 제법 큰 농담차를 보이기도 한다(『素問』(1)WA7-190).

전반적으로 다소 진한 엽이 있으면서 착묵이 안되어 연한 엽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서 제법 농담차가 보인다. 한 엽 내에서도 부분에 따라 농담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明理』).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5.2.1 墨汁의 번짐

번짐 현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保赤全書』·『十四經』(12)490-イ73·『素問』(18)故觀503). 예외적으로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8)故觀503의 권1 제100엽 상엽 3-8의 “者”는 번졌다.

간혹 부분 번짐이 보이나, 묵색이 진하거나 필획 간의 묵즙이 번진 문자의 정도와 수량은 많지

않다. 마멸로 인한 굵은 필획임을 감안하면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니다(『類案』·『運氣』(2)三Aj9·『醫方大成論』·『素問』(1)WA7-190). 드물게 번진 문자가 묵등이 된 경우가 보인다(『素問』(1)WA7-190).

전체가 번진 엽은 1~4엽, 부분 번짐은 5~10엽 정도 보인다. 번진 정도는 경중이 섞여있다. 필획 간 번진 문자는 드물기도 많기도 한다(『運氣』(14)杏4314·『十四經』(14)乾3751·『或問』·『小兒直訣』).

묵즙이 과하여 거의 전체가 번진 엽도 있고, 경중이 혼재한 부분 번짐이나 번진 문자도 적지 않다. 번진 문자가 진한 묵색으로 인하여 더 심해 보인다. 묵즙의 수분이 과하여 연하면서도 번져서 묵등이 된 문자도 있다. 묵색이 균일하지 못하다(『明理』·『傳略』·『雲林神』·『醫學源流』·『和名』·『靈樞』).

엽 전체가 번진 경우도 있고, 부분 번짐은 꾸준히 이어진다. 묵색이 연한 엽도 묵즙에 함유된 수분이 많아서인지 뿌연게 번진 엽이 적지 않다. 묵등이 된 경우도 보인다. 조각술과 조판술을 상쇄하고 있다. 열등을 면한 수준이다(『素問』(1)WA7-25).

5.2.2 墨汁의 쏠림

쏠림 현상이 거의 없거나(『保赤全書』), 드물게 보인다(『十四經』(14)乾3751·『傳略』·『小兒直訣』).

진한 묵색에 밀대로 힘껏 인출한 결과, 필획 측면의 묵즙이 반영되면서, 진하고 굵은 필획이 적지 않다. 다소 보이는 쏠림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커진다. 이로 인하여 착묵의 균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엽이 있다(『類案』·『明理』·『運氣』(2)三Aj9·『運氣』(14)杏4314·『雲林神』·『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1)WA7-190·『素問』(1)WA7-25·『素問』(18)故觀503). 엽당 평균 7~8자 정도. 필획 간에 매워진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 측면 반영이 심하여 부분 번짐처럼 보이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十四經發揮』(12)490-173의 권중 제44엽 상·하엽이다(<사진 3> 참조).

착묵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묵즙이 물리는 현상이 있다. 한 엽에서 묵색이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공존하기도 하고, 한 문자에서도 필획에 따라서 묵색이 다른 경우도 있다(『和名』·『靈樞』). 예를 들면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의 권8 제21엽이다.

묵즙이 진하면서 힘껏 인출하여 측면이 반영되어 진하고 굵은 문자가 거의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량도 60~70% 정도로 매우 많다(『或問』).

5.2.3 字跡의 깨짐

착묵에 큰 어려움이 없는 목활자에 묵색을 진하게 쓴 결과 자적이 깨진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5.3 雜痕과 雜墨

잡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保赤全書』·『小兒直訣』).

소량 정도가 간혹 보이거나(<사진 3> 참조)(『類案』·『明理』·『運氣』(2)三Aj9·『十四經』(12)490-이73·『十四經』(14)乾3751·『傳略』·『雲林神』·『醫方大成論』·『醫學源流』·『和名』·『素問』(1)WA7-190·『素問』(1)WA7-25·『靈樞』), 목판을 이용한 도판의 여백 부분에서도 간혹 보인다(『十四經』(12)490-이73).

대·소가 꾸준히 보인다(『運氣』(14)杏4314·『或問』·『素問』(18)故觀503).

5.4 二重 印出

이중 인출 현상은 대부분 없다.

드물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明理』·『醫方大成論』·『素問』(1)WA7-25). 『十四經』(12)490-이73은 권중 제20엽 하엽 제8~10행 사이의 계선이 이중으로 인출되었다.

5.5 印出의 方向과 強度

5.5.1 印出의 方向

인출의 방향과 강도는 인출면보다 배면을 살피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배면에 침투된 먹물이 밀린 자국으로 밀대의 방향을 알 수 있다.

5.5.2 印出의 強度

밀대로 힘껏 인출하여 요철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類案』·『明理』·『運氣』(2)三Aj9·『醫方大成論』·『醫學源流』·『素問』(1)WA7-190).

5.6 着墨의 均整度

전체적으로 착묵 상태가 상당히 안정된 상태이다. 예외적으로 균일하지 못한 곳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인출 상태가 나빠져서 앞뒤 부분의 선명도가 차이를 보인다(『保赤全書』·『素問』(1)WA7-190). 이는 대형 저술에 간행량이 많아도 나타날 수 있지만, 활자용 목재의 재질이 충분히

단단하지 못하여 인쇄를 거듭하면서 마모된 결과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목색이 진하면서도 반대로 도포를 소홀히 하여 한 번 도포 후 두 번 인출한 듯 매우 연한 경우가 간혹 보인다(『類案』).

약간의 농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균일하다. 번짐이나 측면 반영으로 필획이 굵어서 착묵 상태가 다소 균정하지 못한 편이나, 판면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十四經』(12)490-173·『十四經』(14)乾3751·『傳略』·『醫方大成論』·『小兒直訣』). 일부 외변 광곽이 착묵 되지 않아서 아주 연하게 인출된 곳이 간혹 보인다(『十四經』(12)490-173).

착묵 상태가 다소 과하여 번짐과 측면 반영이 경중을 달리하면서 시중 뒤섞여 그다지 안정되어 있지 않다. 다소의 치우침이 간혹 보인다. 농담 차이도 심하여 균정하지 못하고 제법 편차가 보인다. 진한 곳과 연한 곳이 공존하는 엽도 있다. 부주의로 묵즙이 도포되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 수시로 보각한 듯하다(『運氣』(2)三A9·『運氣』(14)杏4314·『雲林神』·『醫學源流』·『或問』·『和名』·『素問』(1)WA7-25·『素問』(18)故觀503·『靈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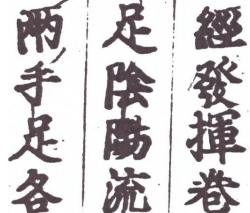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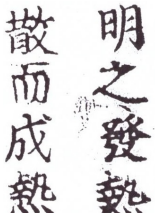
묵즙이 과하여 번짐도 많고, 반면에 착묵이 안되어 여린 곳도 간혹 드물게 보인다. 조각술과 조판술을 상쇄하고 있다(『明理』).

5.7 기타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1)WA7-25의 천두는 평균 40mm인데, 책지의 여백이 충분하지 않아서 끝이 재단되지 못한 엽이 있다. 예를 들면 권1 제2엽, 권8 제228엽 등이다. 지각의 여백은 20mm인데, 여백이 빠듯하여 끝이 재단되지 못한 엽이 권1 제8엽, 권2 제34·35엽 등이다.

5.8 綜合 評價

인출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종(『十四經』(12)490-17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十四經發揮』(12)490-173, 권상 제1엽 상엽 1~3-3~6	『傷寒明理論』, 권1 제1엽 상엽 4~5-7~10
	

<사진 3> 梅壽版의 墨汁의 번짐과 쓸림, 잡묵 등 현상

6. 梅壽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梅壽版의 활자 인쇄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조각술은 중간을 유지하고 있다. 활자를 제법 사용하여 마모된 것이 흠이다. 조판술은 우수하지만, 인출술은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진다.

상급에 해당하는 것은 3종(『十四經』(12)490-473·『素問』(1)WA7-190·『靈樞』), 기타는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7. 結 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梅壽版이란 의사인 梅壽가 京洛 소재 梅壽軒에서 慶長 13년(1608)부터 寬永 5년(1628)까지의 21년간 木活字를 이용하여 간행한 33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2개 조 이상의 활자를 사용하였다. 판식 상의 특징은 대체로 四周쌍변, 무게 또는 유계, 10~12행 18~22자, 小註雙行, 大黒口, 상하내향3葉花紋雙魚尾, 一切式 版心, 연각 활자와 假名 활자 사용, 목판 병용 등을 들 수 있다.

(2) 活字의 재질은 자양이 일치하지 않고 도각의 흔적과 목리가 역력하여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문자의 미감은 충분히 세련되지 못한 수준이다. 많이 사용하여 보각한 활자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가지런한 편인데, 약간씩 정연하지 못하다. 빼떨어진 문자는 다소 나타나고 있고, 墨色 濃淡은 다소 차이가 보인다. 광곽 꼭지점이 크고 작은 형태로 다양하게 벌어져 있다. 교정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보인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도 농담 차이가 적지 않게 보이고, 墨汁의 번짐과 잠묵 그리고 이중 인출 등이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5) 전반적인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중중급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목록·해제·도록류

-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 東京: 汲古書院, 1990.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漢籍目錄』.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87.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新編帝國圖書館和古書目錄』.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普通舊籍目錄』.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70.

-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國立故宮博物院善本古籍資料庫』.臺北:國立故宮博物院.
-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國立故宮博物院善本舊籍總目』.臺北:國立故宮博物院,1983.
-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臺北:國立故宮博物院,1968.
- 宮內廳書陵部編.『(宮內廳書陵部)和漢圖書分類目錄(上·下·增加)』.東京:宮內廳書陵部,1952(上)·1953(下)·1968(增加).
- 內閣文庫編.『改訂內閣文庫漢籍分類目錄』.東京: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1971.
- 內閣文庫編.『內閣文庫圖書分類目錄』.東京: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1974.
- 大東急紀念文庫編修.『大東急紀念文庫貴重書解題』.東京:大東急紀念文庫,1956(第1卷)·1956(第2卷)·1981(第3卷).
- 大東急紀念文庫編修.『大東急紀念文庫書目』.東京:大東急紀念文庫,1955.
- 大東急紀念文庫編修.『大東急紀念文庫書目第二』.東京:大東急紀念文庫,1978.
- 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編纂委員會編.『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東京:東京大學總合圖書館,1995.
-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 I-IV』.東京:東洋文庫,1990·1998·2000·2004.
- 東洋文庫編.『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經部(東洋文庫之部)·史部·子部』.東京:東洋文庫,1978·1986·1993.
- 東洋文庫編.『岩崎文庫和漢書目錄』.東京:東洋文庫,1934.
- 東洋文庫編.『漢籍分類目錄:集部(東洋文庫之部)』.東京:東洋文庫,1967.
- 東洋學文獻センター連絡協議會編.『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東京:東洋文庫,1967.
- 反町茂雄編.『弘文莊古活字版目錄』.東京:弘文莊,1972.
- 長澤規矩也.『圖解和漢印刷史:圖錄篇』.東京:汲古書院,1976.
- 早稻田大學圖書館編.『早稻田大學圖書館所藏漢籍分類目錄』.東京:早稻田大學.
- 天理ギャラリー編.『日本の古活字本』.天理:天理ギャラリー,1977.
- 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編.『天理圖書館稀書目錄:和漢書之部第一二三四』.天理:天理大學出版部,1940·1951·1960·1998.
- 天理圖書館編.『古活字本』.天理:天理大學出版部,1971.
- 天理圖書館編.『古活字本目錄:附年間主要增加和漢書目』.天理:天理大學出版部,1961.
- 天理圖書館編.『善本晷錄』.天理:天理大學出版部,1997.
- 天理圖書館編.『善本聚影』.天理:天理大學出版部,1960.
- 天理圖書館編.『天理圖書館古義堂文庫目錄』.天理:天理大學出版部,1956.
- 天理圖書館編.『稀觀本集』.天理:天理大學出版部,1955.
- 杏雨書屋編.『杏雨書屋所藏古活字本目錄』."『杏雨』第4號(2001.4).

- 杏雨書屋編. 『新修恭仁山莊善本書影』.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1985.
杏雨書屋編. 『杏雨書屋圖錄』.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1998.
後藤憲二編. 『寛永版書目并圖版』. 武藏村山市: 青裳堂, 2003(日本書誌學大系91).

2. 저술·논문류

- 藤堂祐範. 『浄土教古活字版圖錄』. 京都: 藤堂祐範, 1934.
森上修. “初期古活字版の印行者について-嵯峨の角倉(吉田)素庵をめぐって.” 『ビブリア』 100(1993. 10). 148-175.
楊家駱. 『叢書大辭典』. 臺北: 鼎文書局, 1977.
印刷博物館學藝企劃室·凸版印刷株式會社エディトリアル研究室編. 『印刷博物館開館特別企劃展圖錄: 江戸時代の印刷文化 - 家康は活字人間だった!!』. 東京: 印刷博物館, 2000.
印刷史研究會編. 『本と活字の歴史事典』. 東京: 柏書房, 2000.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本編)』. 滋賀縣教育委員會: 大津市, 2000.
長澤規矩也. 『圖解和漢印刷史: 解説篇』. 東京: 汲古書院, 1976.
井上宗雄 등편.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東京: 岩波書店, 1999.
曹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2003. 6). 369-406.
曹炯鎭. “日本 伏見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59(2014. 9). 65-101.
曹炯鎭. “日本 要法寺版 및 涸轍書院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55(2013. 9). 227-263.
川瀨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 東京: 共立社, 1967.
川瀨一馬. “梅壽軒の醫書開版について.” 『書誌學』 復刊新9(1967. 7).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Hyung-Jin. 2003. “A Study on Appraisal of Early Typograph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25: 369-406.
Cho, Hyung-Jin. 2013.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Yohozi Edition and Kotetsusyoin Edition in Japa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5: 227-263.
Cho, Hyung-Jin. 2014.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Hushimi Edition in Japa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9: 65-101.

